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점령 반대

3.19 이라크 침략 3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한·미 전쟁동맹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 반대



3월 19일(일) 오후 3시 / 서울 대학로

부시의 이라크 침공 3년에 항의하는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함께합시다



점령 3년, 이라크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침공한 부시의 이라크 점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령 3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부시는 이라크 총선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인들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령군에 맞선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병사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3200여 명의 자이툰 부대를 3년째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 규모의 군대입니다.

파병 국가들이 이라크 철군 계획을 논의하고 실제로 철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5월에 자위대를 철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말에 또다시 파병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는 유엔 청사 경비와 유엔 요원 경호 업무등 좀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미 이라크에서 2000여 명의 미군 병사들과 100여 명의 영국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점점 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된다면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 젊은이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완전 철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미 전쟁동맹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시는 이란으로 전쟁터를 확대하려 합니다

부시는 또다른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다음 표적은 이란입니다. 만약 부시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핵보유국들이 벌이는 전쟁이 될수있 기 때문입니다. 부시의 또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전평화 세력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전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제반전평화운동은 이라크 침략 3주년을 맞이해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호소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최소 8개의 유럽 나라들, 한국과 일본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호주,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시위가 열립니다. 이라크에서도 시위가 열립니다.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함께합시다!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후원해 주십시오. 유인물 포스터 제작, 집회 무대 및 향 대어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호소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75064, 하나은행 356-910005-50207(박석운)

